

‘사선대’의 명소 형성 원인과 지속가능성

조성욱*

Causes of Attraction Place Formation and Sustainability of ‘Sasundae’

Sungwook Cho*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전북 임실군의 지역 명소인 ‘사선대(四仙臺)’가 명소로 떠오른 이유와 명소로 인식된 시점,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사선대는 오원천의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동부의 급애와 하천의 유로변경 및 하중도 형성 등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명소이다. 둘째, 사선대는 조선 중기 이후 선비들의 유람문화와 관련되어 명소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삼국시대의 역사 유적과 고려시대의 행정중심지, 조선시대의 역원 등 역사적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다. 넷째, 오원천은 주변 지역 농업용수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다섯째, 오원천에 의한 교통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루터, 도로 교량, 철도 교량 등이 활용되었다. 여섯째, 사선대 종합관광지 조성 사업(1996-2005)에 의해서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자연적인 사선대에서 인공적인 사선대로 변화했다. 일곱째, 사선대가 명소가 된 근원적인 요소인 하천 지형과 지리와 역사적인 측면의 인문환경 그리고 오원천의 수자원 이용 등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을 살려야 지속가능한 관광명소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선대, 명소, 하천지형, 인문환경, 수자원, 장소성, 지속가능성

Abstract : This study discussed the causes of ‘Sasundae’ emerged as an attraction place, when it began to be recognized and ways to maintain it as a sustainable attraction pl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Sasundae is a attraction formed by the fluvial landform, such as the cliff of the east formed by the river action of Owon Stream, abandoned channel by stream change and the formation of alluvial island. Second, it is presumed that Sasundae has emerged as an attraction place related to the travel culture of scholars after the middle of the Joseon-Dynasty. Third, there were historical remains and the administrative center and district change. Fourth, Owon Stream has served as a source of agricultural water in the surrounding area. Fifth, a ferry, a road bridge, and a railroad bridge were used as a way to overcome traffic obstacles caused by Owon Stream. Sixth, the artificial embankment was built by the Sasundae Comprehensive Tourist Site Creation Project (1996-2005), changing from a natural place to an artificial place. Seventh, it can be maintained as a sustainable tourist attraction only by utilizing the location centered on the river topography, geographic and historical human environment, and the use of water resources in Owon Stream, which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Saseondae becoming attractions. **Key Words :** Sasundae, Attraction place, River topography, Human environment, Water resource, Placeness, Sustainability

I. 서론

사선대(四仙臺)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하는 오원천(섬진강의 상류 부분)에 형성된 관광 명소로서, 오원천 동쪽 관촌면 덕천리와 서쪽 관촌리의 경계 지역에 하천에 의해 형성된 평탄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지이다.¹⁾ 현재 사선대에는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과 관광시설(사선루, 잔디광장, 조각공원 등), 체험시설(임실군 청소년수련원, 목재문화 체험장 등) 등이 조성되어, 임실군뿐만 아니라 전북 주민들의 휴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시작된 사선대 종합관광지 조성 사업에 의해서 오원천에 인공제방이 축조되어 홍수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민 편의시설의 구축으로 이용 편리성은 높아졌으나, 자연조건에서 유래하는 사선대 본래의 의미와 명소(名所)²⁾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특정 장소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이(difference)’를 가질 때 해당 지역은 관광지로서 지위를 얻게 된다(Kearns and Philo, 1993). 특정 장소가 관광지 또는 관광명소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그 장소가 다른 장소와는 다른 특이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차이를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것이 그 장소의 관광지로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선대의 개발에서도 개발로 인하여 지역 고

유의 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 즉, 장소의 특성이 사라지는 무장소성(placelessness)의 장소(Relph, 1976)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 대해서 장소감(sense of place)을 느끼는데, 장소감은 개인의 장소에 대한 감정, 태도, 행동을 의미한다(Shamai, 1991). 장소는 텅빈 공간에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소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Tuan, 1977). 장소감은 구체적 수준에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민성·윤옥경, 2013:20). 장소는 인간의 사유(thought)와 감정(feeling)과 같은 인간의 경험과 연결되어 무의미했던 물리적 공간이 친밀한 장소로 다가오고, 낮은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이 의미 있는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로 나타날 때 장소성이 형성되고 그 지역에 대한 느낌 즉, 장소감을 가지게 된다(임은진, 2011:109). 장소에 대해 가지는 장소감의 수준은 5단계(피상적 → 부분적 → 개인적 → 기원적 → 문화적 장소감)로 구분할 수 있는데(Hay, 1998), 사선대가 일반적인



그림 1. 임실군 관촌면 사선대의 위치



그림 2 사선대의 안내도와 전경

* 오른쪽 사진(아주경제, 2022).

관광지가 아닌 장소의 특이성을 살리고, 방문객이 애정을 느끼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경치나 편의시설에 의한 편리성에 대한 감정만을 가진 ‘피상적 장소감’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장소감(‘부분적 장소감’ 이상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세심한 지역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선대의 지역개발이 ‘피상적 장소감’ 수준에 머문다면 방문자들은 일회성 방문에 그치겠지만, ‘부분적 장소감’ 이상을 형성할 수 있다면 정기적 방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사선대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개발 및 발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선대의 범위를 동쪽의 금애와 오원천에 의해 형성된 백사장(모래톱) 그리고 구하도를 포함하는 오원천 유역으로 설정하고, 넓은 의미의 사선대 지역은 상류의 방수리에서 하류의 대리까지의 하천 유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사선대가 명소로 등장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인문환경적 특징, 명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선대가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지속적 방문지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그림 1, 그림 2).

II. 사선대의 형성 과정과 오원천의 역할

1. 오원천과 사선대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데미샘(850m)에

서 발원하여, 진안군 백운면과 마령면까지 북서진하다가 마이산에서 발원한 은천과 합류하고, 성수면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갑입곡류하면서 흘러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 다다른다. 이후 성미산(동)과 공수봉(서) 사이의 좁은 지역(협곡)을 지나, 사선대 유역의 평탄지를 형성하고, 신평면의 대리를 거쳐 섬진강댐(옥정호)을 지나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의 경계를 따라 남해로 유입된다(212km)(그림 3). 이 중 사선대가 위치하는 오원천(烏院川)은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 신평면 원천리 구간(12.7km)을 의미하고, 섬진강 분류 중 상류에 해당한다(임실군지 4권, 2020:48).

‘오원(烏院)’이라는 하천명은 사선대의 전설에 등장하는 까마귀(烏)와 오원천의 서쪽(관촌면사무소 지역)에 위치했던 조선시대 역원(驛院)에서 유래했다. 오원역(烏院驛)은 조선 초기 삼례역도(參禮驛道, 한양-통영 노선)에 속한 역원이었으며, 삼례 - 전주 - 오원역(관촌면) - 오수역(오수면) - 남원을 연결하였다. 오원이라는 지명은 1914년 오천면(烏川面)의 면명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오원천은 사선대 북쪽에서부터 관촌면 방수리의 평탄지, 성미산(430.5m)과 공수봉(367.3m) 사이의 협곡, 사선대가 위치하는 덕천리와 관촌리의 평탄지, 대리 북동쪽에서의 방향 전환, 신평면 대리와 창인리(터지내)의 평탄지 등으로 좁은 협곡과 넓은 평탄지를 교차하면서 흐른다. 이 중 사선대 평탄지는 상류의 주천마을(배나드리)과 하류의 사선대로 구성된다. 즉, 사선대는 오원천의 물이 공수봉과 성미산의 협곡을 지나 평탄지를 만나 하천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퇴적물이 쌓인 퇴적 지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원천 동쪽 성미산의 산줄기를 따라 약 35m 정도의 금애(절벽)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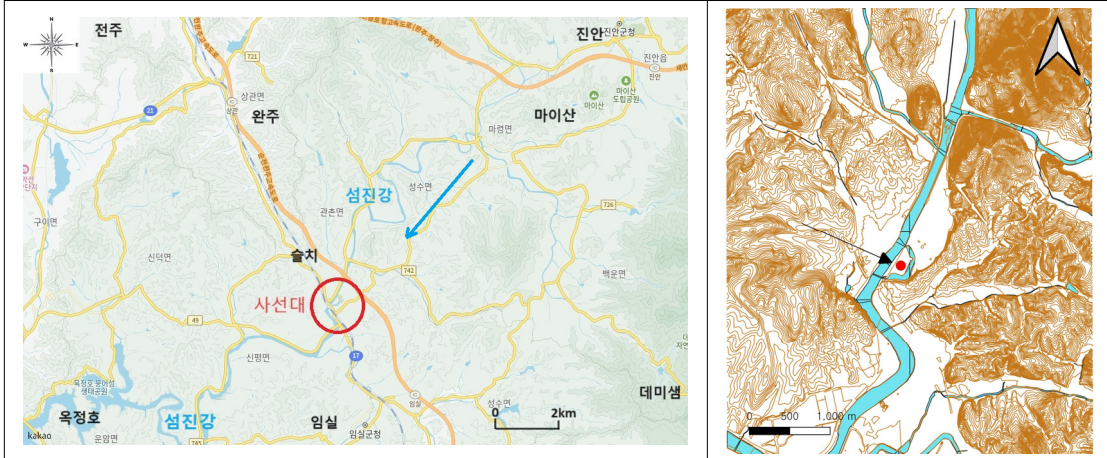


그림 3. 섬진강의 흐름과 사선대의 위치

* 왼쪽(카카오맵), 오른쪽(수치지도).



그림 4. 사선대의 지형 조건과 주변 지점별 해발고도

에는 하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공격사면에서 침식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현재의 하천 흐름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쪽 덕천리의 급애는 현재가 아닌 과거 하천 지형의 흔적이다(그림 4).

오원천은 성미산과 공수봉 사이의 협곡을 지나 사선대 평탄지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하천수의 흐름 에너지가 약

화하여 하천의 분기(分岐)가 나타나고, 분기된 하천 사이에 모래톱(하중도, 河中島)과 범람원이 형성되는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이후 하방침식이 진행되면서 범람원 지역이었던 주천마을 지역은 하안단구로 발전하여 마을이 들어서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하류에 형성된 백사장은 관광지역인 사선대가 되었다. 즉, 명소로서 사선대는 하천의 분기에 의해 하천 중간에 형성된 백사장(활



그림 5. 사선대 주변의 지형단면도

동지역)과 동쪽의 절벽(경관지역)이 어우러져 형성된 것으로, 물과 모래, 급애 경관이 어우러져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인식되고 이용되었다.

관촌면의 남북방향(북북동 ~ 남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오원천을 경계로 동쪽(덕천리)은 급애를 형성하고, 서쪽(관촌리)은 완경사를 이룬다. 오원천이 해발 215m인 데 비하여, 동쪽 급애의 상부에 위치하는 운서정이 250m, 서쪽의 관촌중학교가 239m 지점에 위치한다.

오원천이 성미산과 공수봉의 협곡(해발고도 221m)에서 사선대의 평탄 지역을 지나 하류의 신평면 대리 산지를 만나 하천의 방향이 남동쪽으로 바뀌는 지점(215m)까지의 사선대 구역에서는 직선거리 약 2.4km에 고도차이가 6m로 경사가 아주 완만하다(경사각 0.25%). 오원천의 동쪽은 하천의 공격사면으로 추정되는 급애를 이루는데(해발고도 250m), 급애 위에 운서정이 위치해 있으며, 사선대 백사장은 해발 218m에 해당한다. 현재 관촌면사무소 남쪽의 버스 터미널 지역 등은 오원천의 홍수 때 범람 구역에 해당한다(220m 선)(그림 5).

2. 사선대의 형성 과정

사선대 지역(북쪽의 주천마을 + 남쪽의 평탄 지역)은 오원천이 성미산과 공수봉의 좁은 협곡을 통과한 후 넓은 지역으로 퍼지는 평탄지역이다. 그러나 동쪽에 하천에 의한 흔적지형으로 남아있는 급애를 고려하면, 오원천은 몇 차례의 유로변경과 그에 따른 지형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이곳의 지형 조건이 큰 변화를 겪은 시점(급애, 하중도, 구하도 형성)을 중심으로 오원천의 유로변화를 3단계로 추정해 본다(그림 6). 먼저 1단계(급애 형성 시기)는 오원천이 주천마을 방향(동쪽)으로 흘렀던 시기로, 당시에 운서정 방향에 하천의 공격사면이 형성되고, 서쪽의 관촌면 지역은 활주사면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성미산과 공수봉의 좁은



그림 6. 사선대의 유로변경 추정(3단계)

협곡을 통과한 오원천의 물줄기는 동쪽인 주천마을 방향(성미산 남쪽 부분)으로 흐르다가 암석층을 만나 굽이치면서 이곳에 급애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공격사면). 반면 당시 서쪽의 관촌리 지역은 활주사면으로 완경사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사선대 부근은 서쪽 관촌면 지역과 연결된 하천 연변의 활주사면이었을 것이다. 당시 오원천은 하방침식이 주로 이루어졌고, 사선대 지역은 현재와 같이 평탄 지역이 아니라 동쪽에 갑입곡류하천이 흐르는 협곡 지역이었으며, 이 시기에 해발 250m에서 220m까지 하방침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하중도 형성 시기)는 사선대 지역이 하방침식에 의해 전체적으로 평탄화되어 오원천의 유로가 자유롭게 흐르던 시기로, 하상이 낮아져 운서정의 절벽은 흔적 지형으로 남았으며, 하방침식에 의해 하천의 수위가 더 낮아져서 주천마을은 홍수 때만 물이 침범하는 범람원이 되었고, 오원천은 하방침식보다는 측방침식이 주로 일어났던 시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사선대 유역의 해발고도가 220m 정도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사선대 지역 내에서 동서로 유로가 다양하게 자유곡류를 하던 시기로 추정된다. 하천의 흐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되고, 주천(舟川, 배나드리) 마을 지역은 범람원에서 홍수 때도 안전한 하안단구로 안정화되고, 마을이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재 사선대 모래톱 지역은 하천 서쪽의 활주사면의 일부였지만, 이후 사선대 유역 내에서 하천의 경사도가 낮아지고 물의 흐름이 분산되어 알아지면서, 분기된 물의 흐름 중간에 하중도가 형성되었다. 그 시기에 오원천의 본류는 주천마을 부근에서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사선대 부근에서는 동쪽으로 S자 모양으로 자유곡류(권혁재, 2006:90)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구하도 형성 시기)는 1996년 이후 사선대를 개발하면서 오원천에 인공제방을 축조하여, 홍수 때에 범람지역이었던 사선대의 하중도가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오원천 본류의 흐름을 직선화하면서, 동쪽 물길보다는 서쪽 물길이 주류가 되어 곡류하던 하천의 흐름이 직선으로 변화했다. 즉, 서쪽의 직선 물길이 본류가 되고, 동쪽의 원래 본류는 구하도(舊河道)로 남게 되었다. 본류가 직선화되면서 동쪽 절벽 아래로 흐르던 물줄기는 사선교 남쪽의 보(주천보, 1983년)에 의해서 수량을 조정하는 오원천의 지류로 남게 되었다. 지류(구하도)의 상류 입수구와 하류 출수구의 고도차이는 5.06m로 완만하다(김정문, 2009). 관광지로써 이용되는 주민들의 친수공간은 하

천제방으로 단절된 오원천의 본류가 아닌 동쪽 구하도 연변으로 좁혀졌다.

이와 같이 상류의 성미산과 공수봉의 협곡을 통과한 오원천은 처음에는 현재의 주천마을 쪽으로 흘러 주천마을 지역은 하천의 공격사면(급애) ⇒ 범람원 ⇒ 하안단구(윤순옥 등, 2014:225)로 변하면서 마을이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하류에 위치하는 사선대 지역은 활주사면 ⇒ 여러 갈래의 하천 분기 ⇒ 하중도 형성 ⇒ 인공적인 보와 인공제방으로 인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 사선대가 명소가 된 시점은 2단계 시점으로, 과거 오원천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되었던 동쪽의 절벽 그리고 성미산과 공수봉의 경관, 오원천에 의해 형성된 하중도의 모래톱 등 오원천의 수변 공간이 결합된 자연적인 명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오원천의 본류는 사선대 구간에서 절벽 아래로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구하도).

구하도(舊河道, abandoned channel)는 과거에는 하천의 유수가 흘렀으나, 현재는 유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길을 의미한다(이광률, 2011:305; 신승원 등, 2016). 구하도는 주로 하천 상류 지역에서 나타나는 갑입곡류하천의 곡류절단에 의한 경우, 하천 하류에서 넓은 범람원에서 하천의 분기에 의한 경우, 빙하나 홍수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범람이 발생하여 유로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형성된다(이광률, 2011:305).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구하도는 하도와 범람원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곡류하는 하천의 유로를 직선으로 바꾸고, 하도 양안에 제방을 쌓는 하도 직강화 사업을 통하여 곡류 및 망류 하도가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구하도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관촌 사선대의 경우 공수봉과 성미산 사이의 협곡을 통과한 유수가 사선대 지역에서 갑자기 폭이 넓어지면서 퇴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 결과 분지 내에서 하천의 분류현상이 나타나고, 분류(分流)된 하천의 중간에 나타나는 모래톱(bar)(그림 7)에 의해 사선대가 형성되었으나, 1996년부터 시행된 사선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인공제방의 축조에 의해 구하도가 되었다. 즉, 현재의 사선대 구하도는 원래는 본류였으나, 인공적인 제방으로 인하여 구하도가 되었다.

1996년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원래 주민들에게 명소로 인식되었던, 모래톱의 경관은 사라지고, 인공제방에 의해서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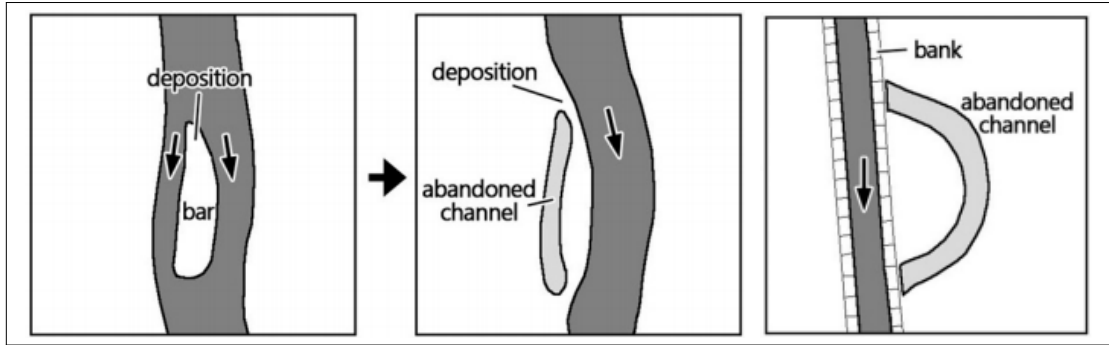


그림 7. 분류에 의한 구하도 형성과정

출처 : 이광률, 2011:307.

했다. 즉, 급애와 주변경관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모래톱으로 형성된 하중도의 특성은 사라진 것이다(그림 8).

III. 사선대의 명소 인식과 인문환경의 역할

1. 사선대의 명소 인식 시기

사선대에 관한 전설은 3개가 전해져오고 있는데(임실군지 3권, 2020:322; 임실군, 1982), 첫째는 약 2천여 년 전 진안 마이산(馬耳山 687.4m, 진안군 마령면)의 두 신선과 임실 운수산(雲水山 413.1m, 임실군 임실읍과 신평면 경계)의 두 신선이 강기슭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는데, 까마귀 떼와 함께 하늘에서 네 선녀들이 내려와 신선들을 호위하여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선남선녀들이 내려와서 놀았기 때문에 이곳을 사선대라 하고, 까마귀가 놀던 이 강을 오원강(烏院江)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에서는 섬진강시발점의 하나인 마이산과 임실현의 별칭인 '운수(雲水)'가 등장하고, 사선대(네 선녀)와 오원천(까마귀)의 어원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2천여 년 전이라는 것은 오래 전이라는 의미일 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운수산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임실로 현치가 이동된 이후인 조선시대 이후의 전설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 정조(재위 1776~1800) 때 주천마을에 살던 이달효(李達孝, 호는 湖山)와 임실현감 이도재(李道在, 전주판관, 남원부사 등 네 사람이 막역한 사이로 오원강에 배를 띄워놓고 자주 즐겼는데, 이 네 사람은

비슷한 연배의 노년으로 마치 네 명의 신선과도 같아서 그들이 놀던 곳을 사선대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에서는 시기가 18세기 후반 조선시대라는 점, 오원강이라는 지명이 이미 존재했었고, 사선대 지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이 지역의 선비와 주변의 전주, 임실, 남원의 수령 등이 등장하고 있어서, 사선대가 이 지역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1675년 전후 임실현감이었던 신계징(申啓澄, 1632~?, 1675년 임실현감 역임)이 코바위 근처의 절경을 보고 사선대라 불렀다는 전설이다(임실군, 2019:121).

이상의 전설들을 토대로 사선대가 지역의 명소로 인식된 시점을 추정해 보면, 조선시대 중기 이후(이달효, 신계징) 사선대가 명소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즉, 관촌 사선대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선비들의 유람장소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명소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서정 방향의 급애, 성미산과 공수산의 경관, 모래톱과 완만한 하천 흐름으로 뱃놀이에 적합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명소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선대 지역의 인문환경

사선대 주변에는 서쪽에 관촌면 면사무소 소재지(관촌리)와 함께 오원천의 상류에 장계무림(長提茂林, 1700년대 조성, 방수리), 성미산성(삼국시대), 방현산성, 방미산성 그리고 동부에 운서정(1928년), 남부에 영벽정(1935년), 전라선 철교(1931년), 17호 국도(오원교, 1911년), 사선문(1987년) 등이 있다. 1987년부터 사선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소총제와 사선문화제를 통합하여 매년 10월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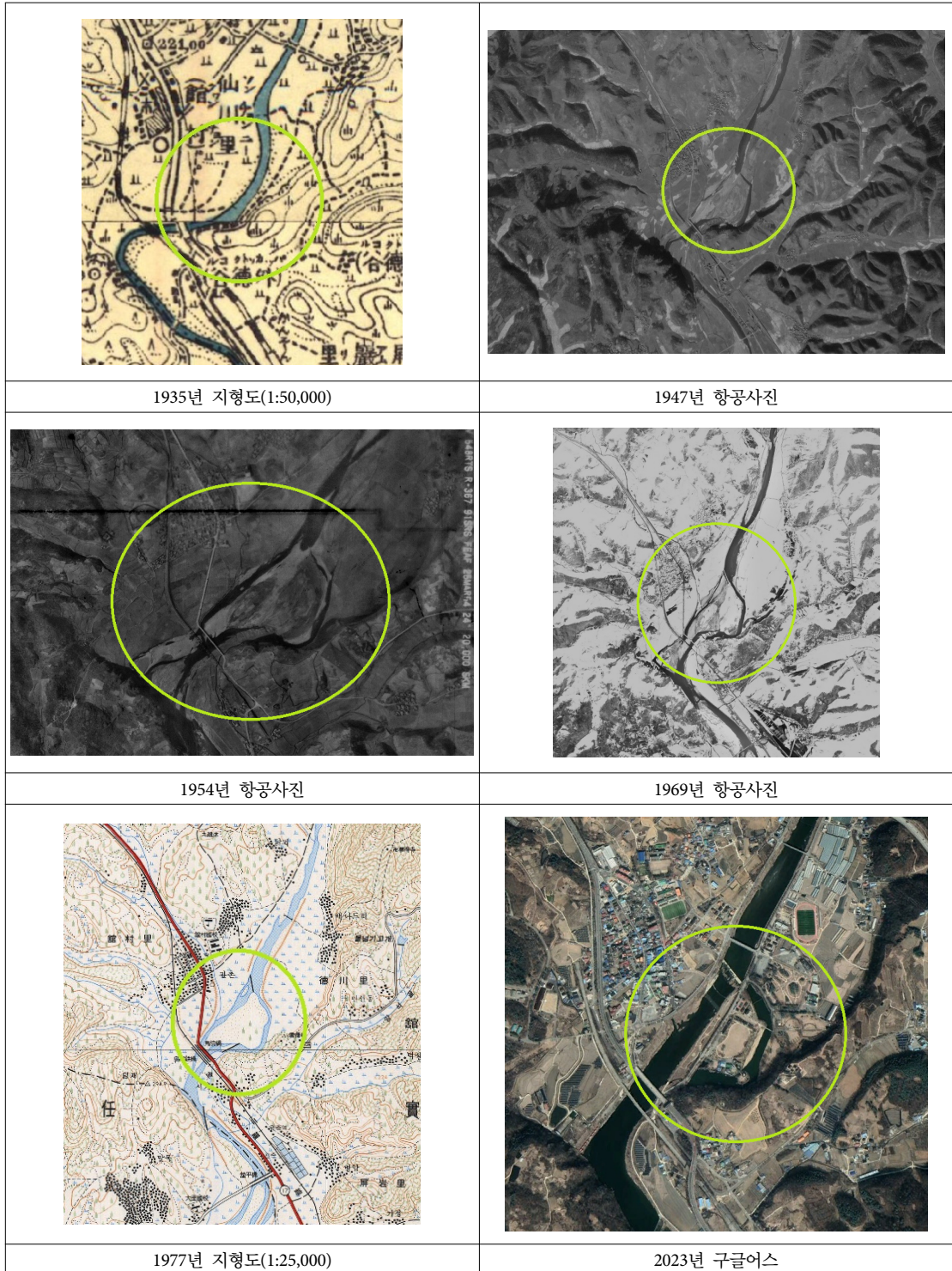


그림 8. 사선대의 최근 변화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지형도, 항공사진), 구글어스.

실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사선대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호남명승 39곳(2021년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문화재청; 이의한; 2023).

사선대라는 지명은 도교의 신선사상(神仙思想)과 관련된 지명인데, 전국적으로 ‘사선대’라는 지명은 5곳이 있다(노재현 등, 2011:68).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운선구곡),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경남 남해군 상주면(금산 16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의 사선대 등이다. 사선(四仙)은 4명의 신선 또는 선녀를 의미하고, ‘대(臺)’는 절벽과 함께 주변의 경관을 의미한다. 즉, 사선대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곳의 공통점은 하천과 함께 급애 또는 바위가 있는데, 관촌 사선대의 경우 오원천 주변의 급애와 하천에 의해 형성된 백사장이 지역의 특징으로 작용하였다.

사선대는 전주에서 남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위치하며(국도 17호선 동쪽), 과거 오원천의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급애와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고, 35m의 급애 위에는 운서정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성미산(430.5m)과 공수봉(367.3m)으로 둘러싸인 평탄지이다. 음식점 및 휴식 시설과 함께, 뱃놀이 장소, 겨울철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는 등 물과 관련한 장소의 특성이 있는 관광지이다.

관촌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상북면³⁾과 하북면⁴⁾을 통합하여, 오원천의 이름을 따서 오천면이라고 하고(유재영, 1993:433; 임실군지 4권, 2020:315), 오천면의 중심지는 상북면 선천리가 되었다. 그리고 1935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하천명(오원천)에서 유래한 오천면에서 역원 기능을 했던 관촌의 이름을 따서 면명을 관촌면(館村面)으로 변경했다. 즉, 자연조건 유래 지명(오원천)에서 인공적인 시설물(관촌역) 유래로 지명이 바뀐 것이다. 오원천 서쪽의 관촌리는 원 취락(오원역) ⇒ 1914년 이전 상북면의 중심지 ⇒ 1914년 오천면의 중심지 ⇒ 국도(17호)와 전라선 철도역 통과 ⇒ 1935년 오천면에서 관촌면으로 변경 ⇒ 시기마을에서 관촌으로 시장이동 ⇒ 시가지 남쪽 확장(과거 침수 지역이었던 터미널 부근) ⇒ 제방 축조로 변화했다.

조선 초기부터 임실군 관내에는 오원역과 갈담역 등 2개의 역명이 있었다(임실군지 1권, 2020:190). 오원역은 삼례역도(參禮驛道) 13개 역에 속해 있었는데, 삼례역-만마동-슬치-오원역-오원천-마치-오수역-울현-남원(남쪽 노선)으로 이어지는 통영로에 속했다. 즉, 조선시대 한양과 전라도를 연결하는 2개의 노선(한양-통

영, 한양-해남-제주) 중 오원역은 한양-통영을 잇는 노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지류노선으로 남서쪽으로 오원역-임실-갈담역-순창-옥과-동북현(남서쪽 노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의 분기점에 해당한다(김중혁, 2017:78). 오원역은 북쪽의 삼례역과 남쪽의 남원역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는 역으로, 슬치(전주~임실 경계, 270m)와 오원천을 넘는 지점으로 중요한 위치였다.

오원천 동쪽은 관촌면 덕천리 지역인데(주천마을, 시기마을 등), 오원천 동쪽 지역 중 구하도를 경계로 사선대 일대만 관촌리에 속한다. 이러한 행정경계는 하천의 유로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즉, 현재의 사선대 구하도가 오원천의 본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림 9).

그리고 진안, 신평, 관촌의 중간 지점인 덕천리 시기(市基) 마을에 장터가 있었으나, 17호 국도(1911년) 및 철교 건설(1931년)과 함께 관촌리로 시장이 이동하였는데, 이것은 교량 건설로 인한 이동 편리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기마을은 대리보를 통해서 신평면 대리로 이동하는 통로이며, 49번 지방도로 진안으로 연결되고, 관촌역(병암리)과 관촌면(관촌리) 소재지의 중간에 위치하며, 오원천의 도강 지점이기도 했다. 시기마을에는 일제강점기 사용되었던 빙고(氷庫) 2개가 남아있으며, 1975년 농촌취락 구조사업과 17호 국도 및 전라선 철도 노선의 영향으로 오원천 주변에서 동쪽의 구릉지로 마을이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시기마을은 시장과 도강 지점, 도로와 철도 통과로 인한 마을 이동(1975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1931년에 개설된 전라선의 관촌역은 관촌리가 아닌 남쪽 약 1.5km의 병암리에 개설되었는데, 그 이유는 슬치터널과 오원철교 그리고 전주-남원, 진안-정읍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관촌면의 면사무소와 시장, 버스터미널은 관촌리에 위치하지만, 관촌역은 서쪽으로 신평면과 운암면 및 정읍 방향과 연결되고(운암제, 1928년 완공), 49번 지방도를 통하여 동쪽의 진안 마령 방면과 연결되며, 17번 국도를 통하여 남북방향으로 전주-임실-남원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 지점인 병암리에 입지시킨 것으로 관촌면의 중심지 이동까지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촌면은 시장기능(덕천리 시기마을), 역원기능(관촌리), 철도교통(병암리)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오원역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관촌리가 면사무소, 시장, 도로 교통 기능 등 관촌면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선대가 위치하는 임실군 관촌면 지역에는 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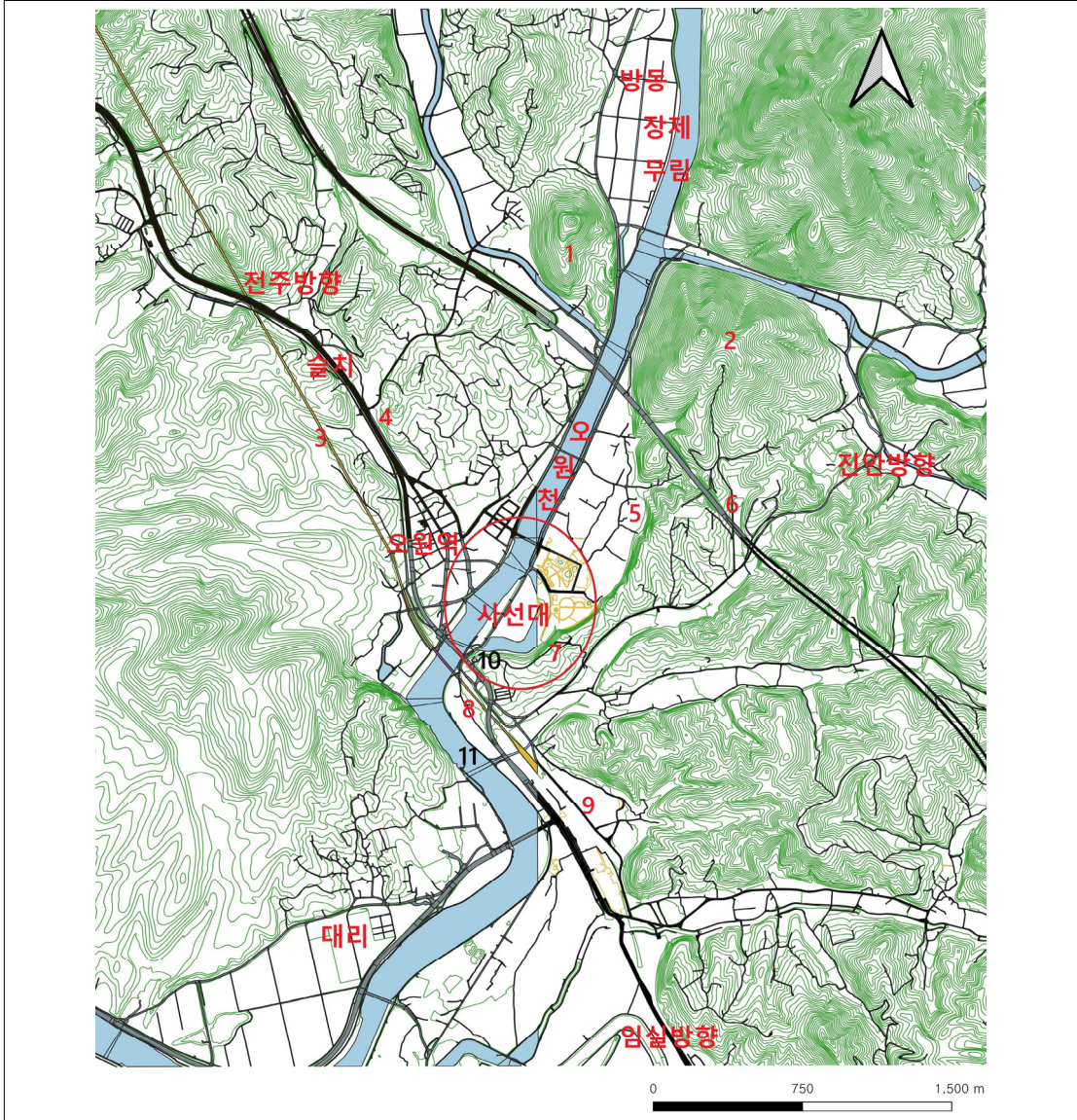


그림 9. 사선대와 주변의 주요 지점들

* 지도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 지도 내부 번호 : 1(공수봉), 2(성미산), 3(전라선 철도), 4(국도 17호), 5(주천마을), 6(고속도로 완주-순천), 7(운서정), 8(시기마을), 9(관촌역), 10(이십리보), 11(대리보)

에 축조된 각산성(角山城, 백제)으로 추정되는 성미산성³⁾과 배피산성(방미산성), 그리고 오원천을 사이에 두고 서북쪽 공수봉의 방현산성 그리고 남쪽의 대리산성(신평면 대리) 등 주변에 4개의 산성이 있다(임실군지 1권, 2020:119). 이러한 산성의 밀집 분포는 삼진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사선대 지역이 삼국시대 서쪽 평야 지역인

정읍지역과 동쪽 산지 지역인 진안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지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영래, 1996).

현재 임실군은 조선시대 초기인 1409년 임실현, 구고현, 취인부곡, 양등량지소 등 4개 고을을 임실현으로 통합하고(임실군지 1권, 2020:175), 1413년 치소를 관촌면 방수리 방동마을(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 현재의 임실

읍(용요산 아래, 491.4m)으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입실현의 현치 이동은 입실현과 구고현의 통합에 따라 두 현의 중간지점으로 현치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전중환, 2024). 즉, 관촌면(방수리 방수마을)은 고려시대까지 입실현의 중심지였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상에 위치하는 역원(오원역)이 위치했던 지역이었다.

3. 오원천과 주민 생활의 관계

오원천은 조선시대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용수의 공급처이면서, 동시에 이동의 장애물이었다. 오원천은 주변 지역 농업용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조선시대 이전 입실현의 현치로 추정되는 관촌면 방수리 방동마을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농업용 수로와 방수림 용도로 조성된 장제무림이 있다. 그리고 하류에는 조선시대 수리시설인 대리보(1483년, 신평면 대리 일대 공급)와 사선대 부근의 이십리보(1508년, 형제보, 오원천 동쪽의 병암리 일대 공급) 등 오원천의 물을 활용한 농업용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조성욱, 2018).

또한 현대에는 사선대의 상류인 방수리에 보를 축조하여 이 물을 전주시의 상수도(1973년~2017년)로 이용했다. 오원천은 섬진강 유역이고, 전주시 지역은 만경강 유역인데, 유역변경을 통해서 전주시의 상수도⁶⁾로 이용한 것이다(전라일보, 2022년 6월 9일자; 환경부).

오원천은 이동에 장애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루터가 존재했는데, 나루터는 덕천리 배나드리(주천마을)와 시기마을에 있었다. 시기마을은 남원방면에서 오원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짧은 지점이면서 시장이 있던 마을이었으나, 190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 교량(1911년)과 철도교(1931년)가 건설되면서 시장기능은 관촌리로 이전되었고, 나루터 기능도 사라졌다.

또한 주천(배나드리) 마을은 ‘배나드리’라는 지명과 함께, ‘가마바위’ 전설이 있어서 어느 시기에 도강지점(나루터)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임실군지 3권, 2020:324). 가마바위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는 지금의 관촌면 소재지 일대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 성미산(城米山)을 끼고 흐르는 강의 어귀에 배나드리라는 나루터 마을이 있었다. 어느 날 새색시가 가마를 타고 강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가마꾼들이 거북의 등에 잘못 올랐고, 거북이 놀라서 새색시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 나루터 옆에 거

북이 형상을 한 자리에 묘를 써주었는데, 강물이 점차 줄어들어 지금의 관촌(현 면소재지)이 형성되었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에서 배나드리 마을이 나루터 취락이었다는 점, 관촌리 쪽으로 물이 흘렀다는 점, 물이 줄어들어 오원천 서쪽(관촌리)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하천의 유로변경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전주~남원 간의 이동에서 오원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시기마을~오원역이 더 짧은 거리인데, 상류에 위치하는 배나드리가 도강 지점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입실의 현치가 방동마을에 있었던 조선시대 이전의 나루터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천마을은 나루터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농업을 주로 하는 마을이 되었고, 주천보와 오원천 제방(1983년) 그리고 관촌리와 주천마을을 연결하는 주천교(1980년)로 관촌리와 연결되고 있다(임실군지 4권, 2020:324).

현재 오원천을 도강하는 교량은 북쪽 상류로부터 좌산교(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방면), 순천-완주 고속도로(전주-남원), 주천교(주천마을 방면), 사선교(사선대 방면), 오원교(전주-남원 간 17호 국도, 현재의 4차선은 2007년), 철도교(전라선, 과거 상관역-관촌역, 관촌역은 1931년, 전라선 완전 개통은 1937년)가 있다.

배나드리 마을의 전설은 조선시대 이전이고, 오원역이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 농업용수로 활용했던 대리보(1483년)와 이십리보(1508년)의 축조 시기는 조선 전기이다. 그리고 1910년대 이후 전주와 남원을 연결하는 17호 국도(1911년), 전라선 철도(1931년), 운서정(1928년)과 영벽정(1935년)이 축조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선대를 방문하기 시작한 시점은 17호 국도에 의한 버스 교통(1910년대)과 철도 교통(1931년 관촌역 개설)에 의한 교통 조건의 변화 이후로 보인다.

IV. 지역개발에 따른 사선대의 의미 변화와 지속가능한 방안

1. 사선대의 지역개발과 의미 변화

사선대는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고, ‘사선대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전라북도, 1991)이 수립되어, 사선대 국민관광지 개발(유원지: 27,742평, 공원: 44,164평)이

계획되었다(임실군, 1993).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은 첫째 지역특화 관광요소(형태적, 시설적, 계획적 요소) 도입으로 이용권역의 광역화와 목적형 관광지, 둘째 일일 및 주말 휴양지, 셋째 향토 및 문화예술 행사 개최지, 넷째 전주권 관광객의 유치, 다섯째 연계개발로 방수리 지구(휴양소풍), 관촌도시지역(숙박, 위락시설), 회봉온천지구(종합휴양, 숙박시설) 그리고 오원천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산책로 및 휴식공간 조성이었다. 개발 내용은 부지매입과 함께 기반시설(부지조성, 상하수도, 도로, 전기 및 통신시설), 건축공사(여관, 수영장, 휴게소, 전망대, 옥외집회장, 야외공연장, 유희시설), 조경공사(식재, 옥외시설비) 등이 계획되었다(총 130억원).

이후에 수립된 사선대 종합관광지 조성사업(1996-2005)에 의해서 오원천 하류 부분인 사선대 서쪽 하천변에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자연적인 사선대에서 인공적인 사선대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성미산성 복원사업(2000-2013), 사선대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청소년수련원과 연계, 사계절 관광지화, 가족 및 청소년 레포츠 단지로 활성화 계획인 관촌 스포츠파크 건설(2007-2016) 등이 계획되었고, 주변에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2002-2005) 등이 추진되었다. 사선대 종합개발 지역의 총면적은 330,012m²이고, 이중 관광지 조성 면적이 166,000m²(50.3%), 조각공원 51,400m²(15.6%), 공원지역 112,612m²(34.1%)이다. 해발고도는 220m 미만이 전체의 97.1%를 차지한다(김정문, 2009:78).

현재 사선대 종합관광지에는 체육시설, 체험시설, 관광시설과 함께, 운서정(1928년), 국제조각공원(1996년), 사선루(2001년) 등이 있다. 그리고 사선대 관광지역은 하중도 부분과 주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중도 부분에는 전통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선문화공간과 체육공간(사선루,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이 배치되고(임실군, 2009), 주변 지역에는 기존 수림과 함께 다목적 잔디광장, 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2004년), 임실 목재문화체험장(2017년), 미니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그림 10). 또한 절벽 부분에는 가침박달나무 군락지(천연기념물 387호, 관촌면 덕천리 산 37), 산개나리 군락지(천연기념물 388호, 관촌면 덕천리 산 36번지)가 있다.

현재 사선대는 인공제방의 구축으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었지만, 하중도(사선대)의 양쪽 물길 중 한 쪽이 인공제방으로 막히게 되고(분류), 주천보에 통제되는 구하도만이 수변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사선대의 본



그림 10. 사선대에 조성된 시설들

래 기능인 하천 연변의 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사선대는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는 전주의 덕진연못과 함께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선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천(물)과 모래사장 그리고 경관으로는 급애와 성미산으로 볼 수 있다.

사선대 개발계획에서는 경관 포인트를 하천과 절벽에 두고, 영벽정 - 운서정 - 성미산 - 공수봉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믹한 경관을 주시하고 있다(김정문, 2009). 그리고 사선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신선사상, 도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선 문화의 상징 공간과 전통정원 조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사선대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자연공원이고, 하천과 수변공간이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선대의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

임실군의 장기 종합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임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나 시설로 사선대(34.9%), 옥정호(18.9%), 오수의견공원(18.3%), 섬진강(11.1%)이 선정되었다(임실군, 2006:105). 이와 같이 임실군민들은 임실군 지역에서 상징적인 장소로 사선대를 가장 의미 있게 인식하고 있다(표 1).

사선대는 원래 하천지형의 특성(하천의 공격사면에 형성된 절벽, 유로변경에 의한 하중도와 백사장)에 의해서 형성된 물과 관련된 명소로 부각되었으나(뱃놀이, 스케이트

장, 백사장), 1996년부터 시작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오원천에 직선으로 인공제방을 축조하고, 공원시설이 조성되면서 원래의 성격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휴식처로 변화했다.

사선대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는 명소 그리고 피상적 장소감 수준에서 부분적 장소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여(Hay, 1998) 지속적인 명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급애와 하천지형 등의 자연조건을 살리고, 주변의 성미산과 공수봉의 경관 및 역사적 특성, 수자원으로써 오원천 주변 지역민과의 관계 등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선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그림 11).

사선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지 주민의 휴식처로서 다른 지역과 똑같은 개념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어디에나 존재하는 휴식 공간이라는 인식 밖에 형성되지 않아 피상적인 장소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선대가 특징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명소가 된 본래의 특성 즉, 하천에 의해서 형성된 공격사면(절벽)과 하중도 그리고 수변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인문환경,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표 1. 임실군 12개 읍면별 임실을 대표하는 장소나 시설 인식

읍면별	1위	2위	3위	4위
관촌면	사선대(82.0)	섬진강(5.3)	옥정호(3.8)	소창사(3.8)
신평면	사선대(59.6)	섬진강(15.8)	옥정호(14.0)	임실호국원(5.3)
임실읍	사선대(49.7)	옥정호(19.7)	섬진강(9.8)	호국원(7.3)
신타면	사선대(42.0)	옥정호(32.0)	필봉(10.0)	섬진강(8.0)
청웅면	사선대(36.4)	옥정호(25.5)	섬진강(10.9)	필봉농악전수관(9.1)
성수면	소창사(26.7)	사선대(26.7)	성수산휴양림(21.7)	옥정호(13.3)
운암면	옥정호(74.2)	사선대(12.9)	섬진강(6.5)	필봉(3.2)
오수면	오수의견공원(71.5)	사선대(10.5)	옥정호(9.3)	섬진강(4.7)
삼계면	오수의견공원(33.9)	성수산휴양림(19.6)	사선대(17.9)	옥정호(16.1)
덕치면	섬진강(45.8)	옥정호(27.1)	사선대(10.4)	회문산(6.3)
강진면	섬진강(36.9)	필봉(21.5)	옥정호(15.4)	사선대(10.8)
지사면	오수의견공원(57.1)	옥정호(12.2)	섬진강(10.2)	사선대(10.2)

출처 : 임실군, 2006, 임실군 장기 종합특화 발전계획(2006-2015).

* 괄호 안의 숫자는 읍면별 %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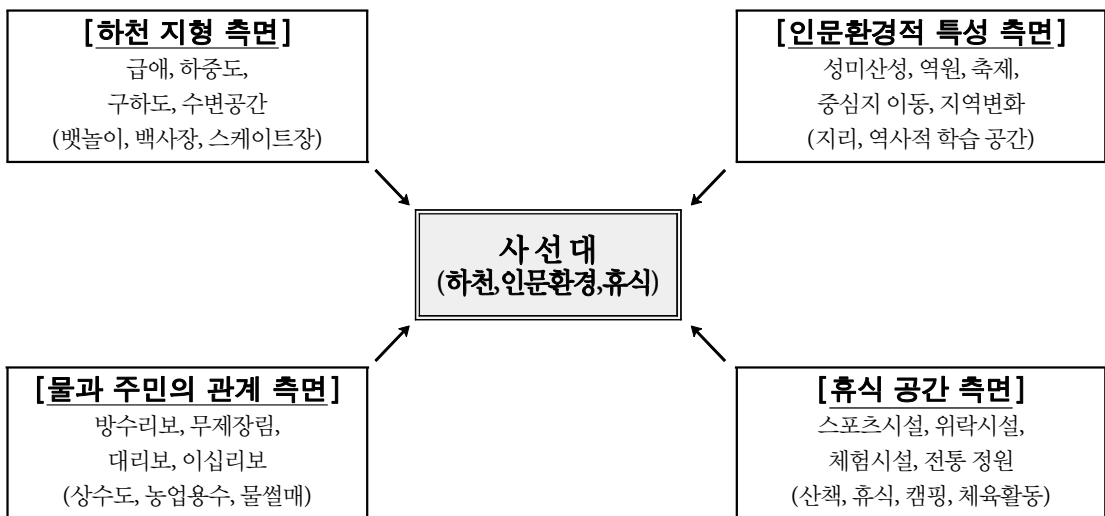


그림 11. 사선대 개발의 주요 개념

로 인식시켜 줄수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때, 일회성의 휴식 공간이 아닌 방문자의 장소감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명소로서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도 17호 노선(전주~남원)으로 연결되면서 물이 명소의 근원이 되는 전주 덕진연못 - 관촌 사선대 - 남원 광한루를 연결하는 물 이용 중심의 큰 개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사선대가 명소로 등장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인문환경적 특징, 명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선대는 오원천의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동부의 급애와 하천의 유로변경에 의해 형성된 모래톱 등 하천지형에 의해 형성된 명소이다. 사선대 지역은 하천의 유로변경 등 지속적인 하천지형의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다.

둘째, 사선대가 명소로 부각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 선비들의 유람문화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방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자동차 교통과 전라선 철도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개선된 이후로 추정된다.

셋째, 사선대 지역은 주변 경관 요소가 되는 성미산성, 방현산성, 방미산성, 대리산성 등의 역사적 유적과 방수리 중심의 고려시대 행정중심지, 조선시대 역원, 지역 중심지 변화 등 지리 및 역사적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다.

넷째, 사선대를 형성한 오원천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농업용수의 근원으로 역할을 했다. 상류 방수리에는 방수리보와 장제무림, 하류에는 조선시대 수리시설인 대리보와 이십리보 등 오원천은 지역주민들의 농업용수의 근원 역할을 했고, 최근까지 전주와 임실의 상수도로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오원천의 교통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루터(배나드리), 오원교(국도 17호선), 철도교(전라선 철도) 등이 활용되었다. 오원천의 도강지점으로는 덕천리 배나드리(주천)와 시기마을이었으며, 현재는 좌산교, 순천-완주고속도로, 주천교, 사선교, 오원교, 철도교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섯째, 사선대 종합관광지 조성사업(1996-2005)에 의

해서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자연적인 사선대에서 인공적인 사선대로 변화했다. 이후 지역개발은 사선대 본래의 의미보다는, 스포츠파크 건설 등과 같이 스포츠와 휴식 장소, 청소년 교육 장소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천에 의해 형성된 사선대 본래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사선대를 전통 정원이나 스포츠 장소, 휴식 장소의 개념으로 개발할 경우, 하천 주변 평탄한 지역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시민들의 휴식처로 인식되어, 사선대만의 특색있는 명소로 살리기 어렵다. 사선대는 하천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천 지형이라는 특징과 주변의 인문환경 그리고 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을 살릴 수 있을 때, 고유한 특색을 갖춘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선대가 명소로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선대가 명소가 된 근원적인 요소인 하천 지형을 살리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선대를 형성한 급애와 하중도(백사장) 그리고 구하도 등의 자연조건과 오원천의 물 자원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역사와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인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방문자들의 피상적인 장소감이 아닌 더 높은 단계의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은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관촌면 관촌리 222번지 및 덕천리 462번지 일대: 35° 40' 16"N, 127° 16' 15"E.
- 2) 명소(名所, 경치가 고적, 산물 따위로 널리 알려진 곳), 명승(名勝,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Naver 국어사전.
- 3) 상북면(현재 관촌면의 서쪽 지역 : 선천리, 금성리, 덕천리, 도봉리, 병암리, 슬치리, 용산리)
- 4) 하북면(현재 관촌면의 동쪽 지역 : 방수리, 방현리, 복흥리, 상월리, 신천리, 운수리, 회봉리)
- 5)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100호.
- 6) 1973년 방수리에 취입보 설치, 2017년까지 전주시의 상수도로 1일 최대 4만 톤을 공급했음.

참고문헌

권혁재, 2006, 「지형학(제4판)」, 파주: 법문사.

김민성·윤옥경, 2013, “장소감 측정도구의 개발과 적용: 초등학교의 성별 차이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2), 17-28.

김정문, 2009, “사선대 관광지 재조성 계획,” 휴양 및 경관연구, 3(1), 77-84.

김종혁, 2017, 「일제시기 한국 철도망의 확산과 지역구조의 변동」, 서울: 선인.

김종혁, 2018, “땅길과 물길의 근대적 변화와 지역사회,” 쌀·삶·문명연구, 창간호, 81-98.

노재현·박주성·심우경, 2011, “‘신선(神仙)’을 지명소(地名素)로 하는 바위명의 유형과 입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3), 61-77.

신승원·정대교·최정현, 2016, “태백 구문소 구하도 퇴적단면의 연대측정을 통한 하도(황지천)의 유로 변화 연구,” 지질학회지, 52(1), 51-56.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서울: 민음사.

윤순옥 등 10인 옮김, 2014, 「지형학 원리(제3판)」, 서울: 시그마프레스(Huggett, R. J., 2011, *Fundamentals of Geomorphology*(Third Edition), Routledge).

이광률, 2011, “우리나라의 구하도 유형과 분포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6(3), 304-318.

이의한, 2023,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명승의 유형과 특징,” 한국지리학회지, 12(1), 149-160.

임실군, 1982, 「내고장 전통문화」.

임실군, 1993, 「임실군 지역종합개발계획(1994-2003)」.

임실군, 2006, 「임실군 장기 종합특화 발전계획(2006-2015)」.

임실군, 2009, 「관촌스포츠파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연구」.

임실군, 2019, 「임실 문화유산 이야기」.

임실군지 편찬위원회, 2020, 「임실군지」(1권: 임실의 역사, 3권: 생활과 민속, 4권: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전주: 신아출판사.

임은진, 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07-121.

전라북도, 1991.4, 「사선대 관광지 개발기본계획」.

전영래, 1996, 「백촌강에서 대야성까지」, 전주: 신아출판사.

전종한, 2024, “조선시대 읍치(邑治)의 이설(移設) 사례로 본 입지적 지향,” 대한지리학회지, 59(6), 719-736.

조성욱, 2018, “조선시대 수리시설에서 ‘설보’의 지리적 의미,” 한국지리학회지, 7(2), 165-180.

Hay, R.,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1), 5-29.

Kearns, G. and Philo, C.(eds.), 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Shamai, S., 1991, Sense of place: An empirical measurement, *Geoforum*, 22(3), 347-358.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http://map.ngii.go.kr/ms/map/>(관촌면 항공사진; 1947년, 1954년, 1969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도면번호 : 임실 35706021, 35706022, 35706031, 35706032)

문화재청, www.cha.go.kr(명소)

아주경제, 2022년 11월 29일자, “임실 사선대·오수외견 관광지, 문체부 열린관광지 선정”

전라일보, 2022년 6월 9일자, “천년고을 방수리”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환경부, <https://www.me.go.kr/>(상수도보호구역지정현황)

Naver 국어사전 : <https://ko.dict.naver.com/>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n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25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5일